

【 해외금융 뉴스: 유럽 】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 보험회사 환경 악화 유발

- 현재의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는 보험환경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8월초 현재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15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 기록적인 저금리 수준을 당분간 변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힘.
 - 이에 대해 유럽의 거대 재보험회사인 Munich Re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경기가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경기가 다시 경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는 은행산업에게는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보험산업에게는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금리수준이 조속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Munich Re는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며, 자본확충을 요구받는 등 보험산업 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밝힘.
 -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에 연계되는 장기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금융권에 비해 채권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는 보험산업의 투자수익을 하락시켜 왔다고 밝힘.
 - 또한 저금리 상황은 부채의 현재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책임준비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부채를 시가평가하지 않는 현재의 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에 이러한 부채의 증가가 기재되지 못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함.
 - 한편,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유발된 은행산업의 자본확충 요구는 보험산업에 까지 확대될 추세이어서 보험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힘.

(Financial Times, 8/6)